전북불교환경대 출범 "환경보살 되겠습니다"

전북불교회관서 창립법회 봉행
창립준비위 발족 5년 만에 결실
상임대표 미소사 주지 종범 스님
"모든 생물 연대하며 수행할 것"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환경연대는 10월 27일 전북불교회관 큰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전북지역 생태계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보전 운동을 펼칠 '전북불교환경연대'가 출범했다.

전북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종범 스님, 고창 미소사 회주)는 10월 27일 전북불교회관 큰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출범식은 2019년 7월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지 5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전북불교환경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전북불교환경연대의 출범은 환경보살이 되겠다는 참회와 서원"이라며 "동체대비의 큰 가르침을 좌표로 삼아 마음을 맑히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환경보살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서원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전북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종범 스님에게 임명장과 지부등록증을 전달했다. 이어 종범 스님은 전북불교환경연대 무여 스님, 동산 스님, 남궁선, 김경숙 공동대표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상임대표 종범 스님은 취임사에서 환경문제는 인류 전체의 문제로 커져 '생물 대멸종'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전북불교환경연대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인간을 넘어 모든 생물종과 깊이 연대하고 이 위기 속에서 바른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지구는 인간만의 공간이 아닌데도, 인간들의 전유물처럼 소유하고 지배하고 파괴해 왔다"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실상을 바로 보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을 보호하는 불교의 생명존중 전통은 이 시대의 가르침"이라고 역설한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위기의 순간 전북 지역 생태계를 보전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서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진 축하 무대에서는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며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울산불교환경연대 회원들의 숟가락 난타, 전북불교회관 바라밀 합창단의 찬불가와 불교환경연대 주제곡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를 합창해 전북불교환경연대의 출범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전북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종범 스님, 공동대표 무여 스님, 울산지부 상임대표 천도 스님, 광주·전남 상임대표 해청 스님, 부산지부 공동대표 안도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효진 스님, 김제 청룡사 주지 보현 스님 등 스님들과 남궁선·김경숙 공동대표,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안호영 국회의원, 유남희·이정현 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고불총림연구원' 출범 세미나 열린다

11월 12일 '고불총림의 재조명'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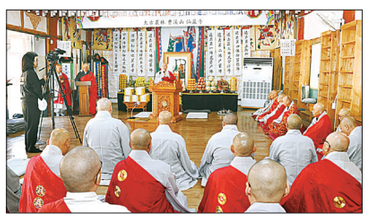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1월 12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고불총림연구원 출범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불총림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고불총림의 면면을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불총림의 성격과 위상(한상길·동국대) △고불총림과 백학명, 용성의 선농일치(이재수·동국대) △고불총림의 계승과 서옹 대종사(금강 스님·고불총림연구원장) △고불총림과 가야총림(김방룡·충남대) △고불총림과 봉암사 결사 비교(김광식·대각사상연구원)가 발표된다.

신중일 기자

선암사, 대각 국사 탄신 다례재

10월 30일 법맥상속식도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승범 스님)는 10월 30일 경내 만세루에서 '대각 국사 탄신 969주년 다례 및 합동건당(법맥상속)식'을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원로의장 난파 스님, 주지 승범 스님, 중앙원로의장 호명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다례재 이후에는 호명 스님과 승범 스님에 대한 합동 건당식도 봉행됐다. 이날 호명 스님은 지선, 정각, 대공, 지덕 스님에게 법맥을 전하고, 승범 스님은 관진 스님에게 법맥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광대 불교동아리, '如蓮'으로 재탄생

10월 29일 익산 관음사서 출범식
3월부터 창립 준비, 불교활동 전개



익산 원광대 불교동아리 '여연'은 10월 29일 익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재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원광대 불교동아리가 재창립 법회를 봉행하고 '연꽃과 같이(如蓮)' 다시 피어났다.

익산 원광대 불교동아리 '여연'은 10월 29일 익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재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동아리 지도법사 덕림 스님(관음사 주지), 심곡사 주지 정안 스님, 천고사 주지 우경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미종 지도교수, 정완섭 대불련원광지부동문회장, 최종인 동문(한서대 교수), 문건우 여연 회장(원광대 교육학과 23학번) 등 사부대중 20여 명이 동참했다.

원광대 불교동아리 여연은 학기 초인 지난 3월부터 창립 준비 모임을 열고 다양한 불교 활동을 진행했다. 칠불사·금산사 템플스테이 참여하고 매월 2차례 독서모임을 하는 등 불교 동아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력했다. 불교동아리 회원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이날 출범식을 열게 됐다.

지도법사 덕림 스님은 인사말에서 "원광대 불교동아리가 '연꽃 같다'라는 의미가 있는 여연(如蓮)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립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회원 여러분들이 불교를 일으켜 주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정안 스님과 우경 스님도 "학생들이 불교를 접하고 배우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불교동아리 여연이 원광대 학생들의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종 지도교수는 "처음 동아리를 창립할 때, 가능할지 의심했지만 처음 가입한 학생들에게 힘을 얻어 여기까지 왔다"며 "부처님의 40여 년간의 전법을 생각하며 학생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태리마애불 보물 지정 60년 음악회

태학사, 경내 특설무대서


천안 태학사(주지 법연 스님)가 10월 2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삼태리 마애불 보물지정 6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보물 삼태리마애불의 존재를 다시금 지역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천불사 주지 인경 스님, 홍성 관음사 원철 스님(태고종 세종·충남교무 종무원장), 천안 승천사 원공 스님 등 스님들과 이정문·이재관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등 지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사천 선암사, 영산수륙재 봉행

10월 26일 특별법단서


사천 선암사가 창건주 이여래장 보살과 이상현 대인의 공덕을 기리는 영산수륙재를 봉행했다.

사천 선암사(주지 도각 스님)가 10월 26일 경내 대웅전 앞 특별법단에서 영산수륙재 및 승보공양 법회를 설행했다. 이날 법회는 선암사를 창건한 여래장 보살의 포교원력과 이상현 대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산수륙재는 국가무형유산 아랫녘수륙보존회(이사장 석봉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이어 기념법회와 승보공양, 어울림 한마당이 이어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해인사 보살계 수계법회

10월 25~26일 금강계단서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합천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10월 25~26일 양일간 경내 금강계단에서 '제64회 보살계 수계 법회'와 '사천왕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첫날에는 보경당에서 해인삼매를 주제로 한 법문을 청취한 뒤 철야정진을 이어나갔다. 이튿날은 경내 대적광전 금강계단에서 전계아사리 태허 무관 대종사, 갈마 아사리 율주 경성 스님, 교수 아사리 율원장 금강 스님을 삼사(三師)로, 혜문 대종사, 태원 대종사, 반야 스님, 천은 스님, 도오 스님, 원타 스님이 칠증사(七證師)을 맡아 보살계 수계법회가 설행됐다.

이날 동참한 2000여 불자들은 참회진언을 염송하며 스님들에게 연비의식을 받았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보살계 수계법회와 사천왕상 봉안 불사에 동참한 인연공덕으로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10돌 마하위하라 "모두의 안식처 되길"

10월 27일 경내 일원에서
창건 10돌 기념법회 봉행
가사, 음식 공양도 진행돼


마하위하가 10월 27일 경내 일원에서 창건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의 창건 10주년을 기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아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님)는 10월 27일 경내에서 창건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마하위하라 고문 공운 스님, 구암사 회주 북천 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계룡 대원사 주지 석용 스님 등 스님들과 파나보크 주한 스리랑카 대사, 최원영 정의평화불교연대 및 스리랑카와 한국불자 1000여 명이 함께했다.

사찰 입구에 조성한 사자상 개막을 시작으로 법회는 막을 올렸다. 초기불교 전통에 따라 안거를 끝낸 스님에게 가사(袈裟)를 공양하는 '까티나 법회'가 설행됐다. 또한 스리랑카 불교 전통에 따라 스님들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의식에 동참자 모두가 참여했다.

이어 스리랑카 어린이들의 전통축하공연, 내빈축사, 보리수 감사패 전달, 자애경 독송 순으로 법회는 마무리됐다.

담마끼띠 스님은 "셀 수 없이 많은 분에게 도움을 받아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여러분께 받은 공덕은 이 사회를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오는 11월 전라남도 나주에 분원을 개원해 이주민들에게 불법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도일 스님 탄신 101주년 추모다례재

10월 25일 칠곡 각황사서


(사)세계불교교황청 총본산 각황사가 우각당 도일 스님 탄신을 기리는 법석을 마련했다. 칠곡 각황사(청장 능인 스님)는 10월 25일 우각당 도일 스님 탄신 101주년을 기리는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세계불교교황청 청장 능인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도일 스님은 교화의 길을 닦아 후학들을 이끄셨다"며 "부처님 법이 바로서야 세상이 바로 선다고 하신 말씀을 거듭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생명 살리는 생태방생법회 열리다

지구기족생명살림, 운부암서
생명살림 운동본부 현판식도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통해 지구촌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지구가족생명살림 생태방생 법회'가 봉행됐다.

지구가족생명살림(대표 혜진 스님)은 은해사 운부암(감원 불산 스님)과 함께 10월 26일 운부암 대종지에서 '제3회 지구가족생명살림 생태방생법회'와 지구가족생명살림 운동본부 현판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방생법회는 운부암 역대 조사 다례재를 시작으로 △선다명상 △수륙재 △공양기도 △방생 △관음정근 △관음무 △기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은 팔정도를 상징하는 8마리의 잉어와 15kg 상당의 미꾸라지를 방생했다.

이어 보하루에서는 운부암 불산 스님 법문, '지구가족생명살림 운동본부 사무실'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불산 스님은 법문에서 "생명위기와 기후위기를 불교가 극복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며 "일체중생이 모두 평등하고 소중한 생명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이어 운동본부 사무실 현판식에서는 생명살림 실천 지침서인 〈혜지반야경〉과 '지구가족 행복기도' 봉헌식이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예순부터 백세까지' 합동축하법회

각원사 경내 대웅보전서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10월 26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환갑, 칠순, 팔순, 구순, 상수(100세)의 불자들을 초청해 '제2회 합동축하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각원사 주지 대원 스님은 "사는 데 만 급급하지 말고, 돌아보면서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